

# 인도 주요 업종별 임금 동향

(2012. 5. 31)

뉴델리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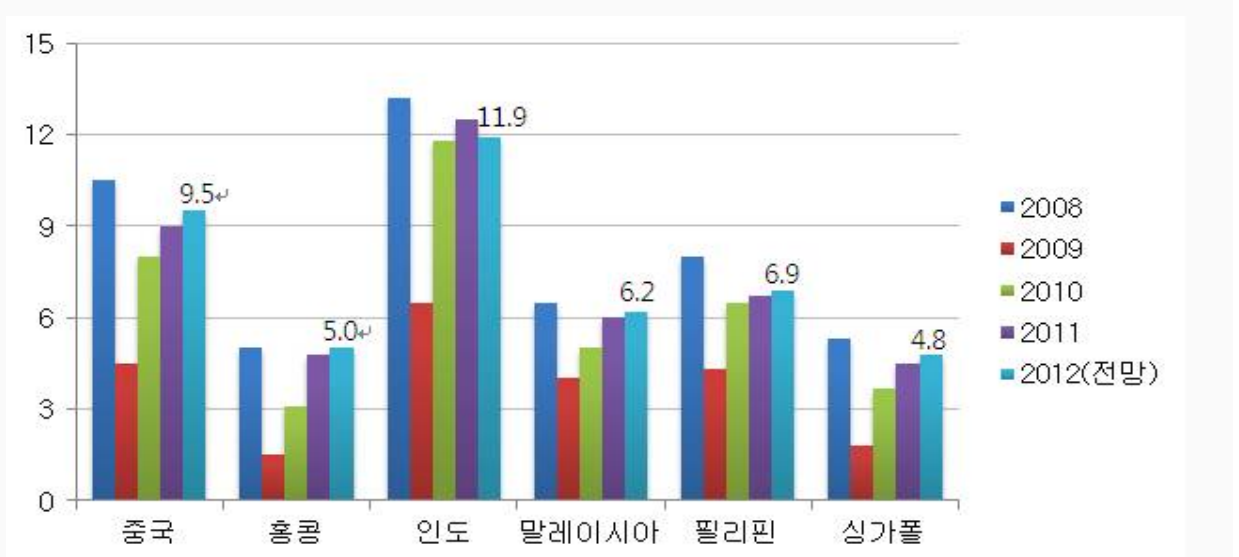
## □ 2012년, 인도 임금 인상률 전망

○ 2012년 Aon Hewitt사 조사에 따르면 인도 평균 임금 인상률은 11.9%로 전망되며, 작년 인상률인 12.6%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필리핀 6.9%, 중국 9.5%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, 인도 임금 상승률은 지난 6년간 평균 10%대를 기록하고 10년 연속으로 아·태지역 주요 국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

- 전년대비 인상률 하락 추세는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와 수요 감소에 따른 기업별 긴축 예산 정책 영향으로 분석됨.

### 주요국의 임금 인상률 전망

(단위 : %)



자료원: Aon Hewitt- Annual India Salary Increase Survey 2012

- 임금 인상률 하락현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며 제조업의 경우 2011~2012년도 산업 성장률이 3.9%로 전년도 성장률 78.6% 대비 50%가량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.
  - 제조업 중 전력, 철강, 광산 및 건설업 모두 인상률 하락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.
  - 서비스분야 중 통신 및 금융부문의 임금 인상률은 전년대비 현격히 하락한 11% 및 10%로 각각 조사되었고 이외 소매, IT 소프트웨어, 금융 서비스 및 여행업계 역시 전년대비 낮은 인상률을 나타냄.
- 인도중앙은행(RBI) 자료에 따르면, 임금 인상률은 주별 편차가 큰 편으로 드러났고 시골 지역의 비숙련 근로자 임금 인상률 인상 속도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점이 지적됨.
  -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주는 마니푸르 주이며 그 뒤 순위는 안드라 프라데쉬, 마하라슈트라, 라자스탄, 카르나타카, 펀잡, 메갈라야, 구자라트주로 조사되며, 이는 주별 물가 상승률 순위와 대부분 일치함.
  - RBI는 임금상승 요인으로 시골지역의 경우 유효 인력이 노동 대신 교육을 선택하는 추세와 식품 물가상승률을 지적함.

## □ 인도 주요 산업부문별 동향 Up & Down

○ 인도는 2012년 산업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률 하락이 전망되며 특히, 금년 임금 인상률 둔화를 주도하는 산업부문은 IT, 소비재, 자동차 및 금융서비스 산업임.

- 인도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심리가 위축되어 IT, 소비재 및 자동차 산업의 매출감소, 금리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성장 압박요인이 임금 인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

#### < 자동차 산업 >

○ 금년 인도 자동차산업의 임금인상률은 타 산업부문 평균보다 낮은 10~11% 전망됨.

- 지난해 인도 자동차산업 매출이 약 12% 감소하는 등 고성장이 주춤하였으며, 금년 내수시장의 전망은 밝으나 유가급등 악재 등으로 빠른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임금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
#### < IT 산업 >

○ Wipro 및 Infosys사 등 주요 IT 기업은 작년 12~15% 임금이 상승했었으나, 금년에는 6~8%로 전망되고 있음.

- 특히,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연봉이 높은 수준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산업 또한 임금 인상률이 지난 해 12.4%보다 낮은 11.2%로 전망되며 인건비 증가와 마진 감소가 원인으로 꼽힘.

- 인도 IT 부문은 해외시장의 주문 감소, 비용 경쟁력 확보노력 및 소비심리 위축이 악재로 작용함.

## □ 시사점 및 전망

- 최근 인도기업 중 기업수익과 생산이익을 직원에 배분 공유하는 서구식 임금지불 제도를 표방한 변동임금제 도입으로 각종 연봉 외 수당으로 지급 형태를 다양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고정임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.
- 또한, IT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성과기반 임금 변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 추세이며, 기업 비용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.
- 인도의 임금인상률 완화 추세에 따라 중간 이상 직급과 고급 인력 유출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, 인도 인력시장은 구인·구직의 수급균형 및 자격 요건에 맞는 대우향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숙하는 것으로 평가됨.

자료원: Aon Hewitt 보고서, Economic Times 등 언론종합